

---

## 정부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동향

- 고독사 예방 정책 주요 내용 및 재단 연계 방향 검토 -

---



춘천미래동행재단  
정책개발전담

# 정부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동향

- 고독사 예방 정책 주요 내용 및 재단 연계 방향 검토

2025.5.13. 보건복지부 '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' 개최에 따라 정부 정책과 재단 사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, 향후 신사업발굴 및 사업추진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.

## □ 협의회 기능

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,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

(구성) ▲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, ▲ 관계부처 차관·차장7명(행정안전부,교육부,문화체육관광부,고용노동부,성평등가족부,경찰청,소방청) ▲ 지방자치단체2명(서울,부산) ▲ 위촉직 민간 위원10명

## □ 2026년 협의회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정책 프레임 전환	○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 →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 논의
정책 추진 방향	○ 관리체계 구축, 법률 개정, 실태 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추진
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	○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·발전 논의 ○ 고독사 예방법을 「(가칭) 사회적 고립 예방법」으로 전부 개정 예정 ○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○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예정 ☞ 사업 대상 범위: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여 청년·중장년·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
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(안)	○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('23-'27)의 4대 추진전략 기반, 2026년 고독사 예방시행계획 보고

## □ 「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」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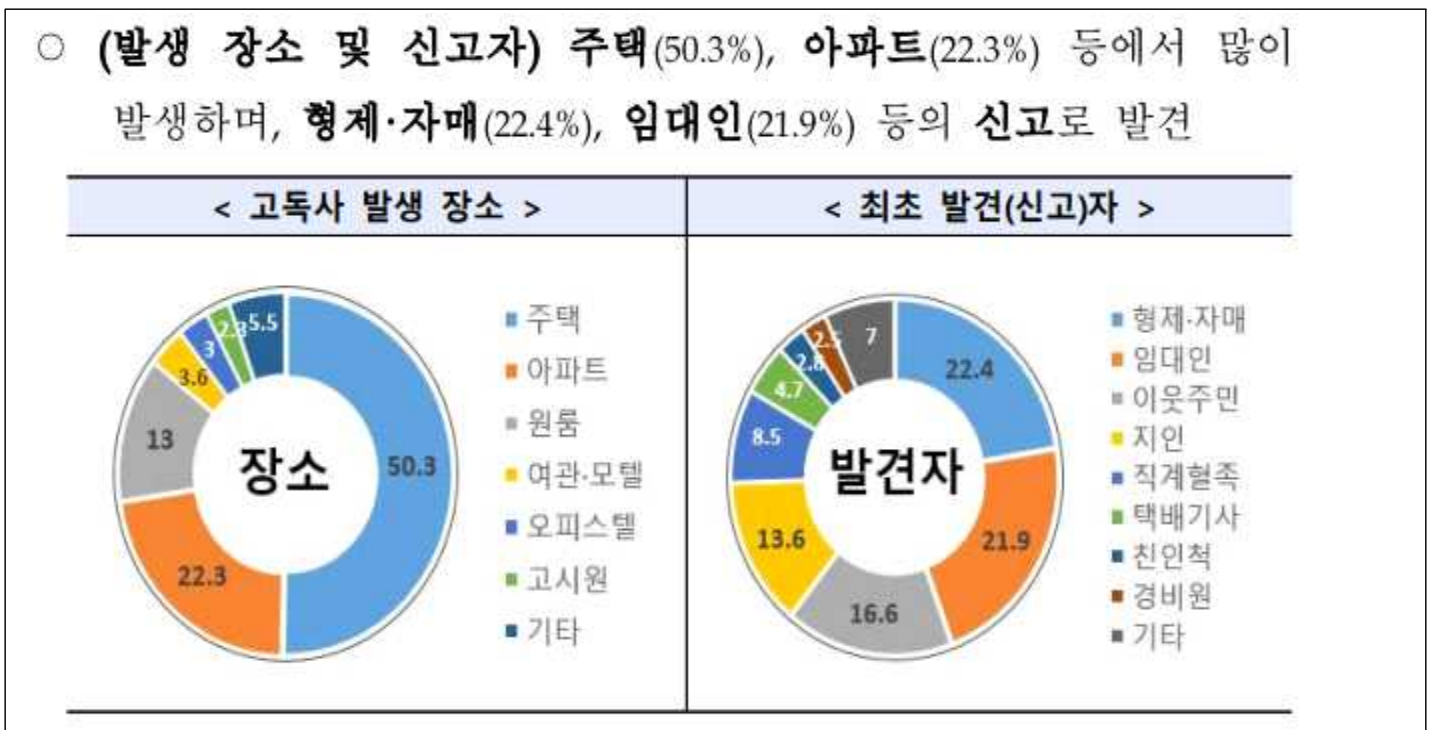
### ○ 고독사 성별, 연령 현황

- 남성(84.2%)이 여성에 비해 5.3배 이상
- **50~60대(58.6%)가 절반 이상 차지**



### ○ 고독사 발생 장소 및 신고자

- (발생 장소 및 신고자) 주택(50.3%), 아파트(22.3%)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, 형제·자매(22.4%), 임대인(21.9%) 등의 신고로 발견



○ 고독사 위험군 특징

구분	규모 및 특징
<p>중장년 (40~60대)</p>	<p>[규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0대의 25.8% / 24.5만명</li> <li>○ 50대의 33.9% / 37.3만명</li> <li>○ 60대의 30.2% / 35.5만명 추정</li> </ul> <hr/> <p>[가장 힘든 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제적 문제(39.1%)</li> <li>○ 타 연령 대비 일자리 상담 욕구(15.6%)</li> <li>○ 사회적 관계 문제(6.6%)</li> </ul>
<p>노인 (70대 이상)</p>	<p>[규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70대 이상의 16.2% / 21만명 추정</li> </ul> <hr/> <p>[가장 힘든 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강 문제(30.4%)</li> <li>○ 정서불안(27.9%)</li> <li>○ 청소·세탁(11.5%)</li> <li>○ 외출동행(8.4%)</li> <li>○ 병원치료(6.5%) 등 욕구 다양</li> </ul>
<p>청년</p>	<p>[규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~29세의 9.7% / 13.8만명</li> <li>○ 30대의 16.6% 추정 / 20.4만명</li> </ul> <hr/> <p>[가장 힘든 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서불안(42.8%)</li> <li>○ 경제적 문제(36.2%)</li> <li>○ 타 연령대 대비 정서지원 욕구가 큼(16.5%)</li> </ul>

※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/ 한국리서치 자료 분석

○ 중장년 세대, 부처별 주요 대응방안

구분	내용
복지부	<p>□ <b>개입거부 중·장년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모델 마련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·장년 위험군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모델 마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 상담 지속 거부 위험군 대응 매뉴얼 마련</li> <li>○ 사회참여 촉진 생활 쿠폰 등 지원 (고립적 일상 변화유도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예시) 고립적 일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지역상점 이용쿠폰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고용부	<p>□ <b>조기 퇴직한 중·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고용복지+센터 내 중·장년 전담창구(46개소) 및 중장년내일센터(31개소) 연계를 통해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생애경력설계, 재취업·전직 역량 강화, 취업 알선 등</b></li> </ul> </li> <li>☞ 퇴직한 전문인력(50~70세 미만)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<b>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공</b> 강화</li> </ul>
교육부, 지자체	<p>□ <b>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중·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·운영 유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<b>건강관리, 안전, 금융, 디지털 역량(스마트폰·키오스크 등) 등</b></li> </ul>

○ 노인 세대, 부처별 주요 대응방안

구분	내용
복지부	<p><b>□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지체계 구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인 위험군과 자원봉사자 간 1:1 결연 확대</li> <li>○ <b>돌봄영역(노노케어등)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</b>를 통한 지지체계 구축</li> </ul> <p>* 노인 위험군에 대한 정서지원 등을 위해 <b>공공·민간기관 등 자원봉사자와의 1:1 결연·서비스 확대</b></p> <p>⇒ '22년 기준 총 136개소(국민연금공단, SK하이닉스, hy사회복지재단 등) 참여 [사랑잇는전화(주 2~3회 말벗서비스), 마음잇는봉사(방문봉사, 후원금·품 지원)]</p> <p><b>□ 사전 장례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인 위험군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,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 확산</li> <li>* 사전 장사 방식(매장, 화장 등), 빈소 유무, 장례 규모·방식등을 결정하는 (가칭)사전장례의향서 도입('24년~)</li> <li>*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선도사업 도입(~'24년) 검토</li> </ul>
복지부, 지자체	<p><b>□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도 제대로 된 공영장례*가 이뤄지도록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 및 장례지원 지속 확대</li> </ul>

[사례]

- 서울특별시에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 '서울 잇다 플레이스'를 운영하여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
-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유희공간 활용 고립·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(가칭) '마음점빵'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하여 시범운영 할 예정

\* 마음점빵: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·관계 형성을 유도, 맞춤형 마음돌봄 프로그램 지원

## □ 재단 연계 시사점

- 정부 정책이 ‘고독사 사후 대응’에서 ‘사회적 고립 사전 예방’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, 재단 또한 관계망 형성 및 사회참여 기반 사업 확대 필요
- 고독사 위험군 중 50~60대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, 중장년층의 경제·관계 단절 문제 대응을 위해 재취업, 사회공헌,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연계 강화 필요성 검토
- 노인 위험군에 대해서는 노노케어, 정서지원, 관계망 형성 등 예방 중심 돌봄 체계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, 재단과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 다각화 및 지역사회 기반 정서지원 체계 구축 가능
- 향후 재단은 일자리·교육·사회참여·돌봄 기능을 연계한 통합형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예방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제시